

[보도자료]

아·무·일·도

장재민(Jang jaemin) 개인전



장재민, <길의 끝>

2018, 130x162cm, oil on canvas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장재민 Jang jaemin

전 시 제 목: 아·무·일·도 something.and.or.nothing

일 정: 2018년 10월 2일 - 2018년 10월 31일

장 소: 에이라운지 갤러리 (A-L)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무·일·도>라는 제목으로 장재민 개인전을 진행한다. 작가의 최근 작업들은 작가가 경험한 다양한 지역의 풍경을 '자발적 고립'의 시각에서 그려낸 작품들로, 이번 전시는 근래에 계속 이어져오던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전시이다.

장재민 작가의 회화작품은 처연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가진다. 작품의 이러한 분위기는 회색조의 색감이나 물감의 물성 짙은 질감,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형태들이 한데 섞여 만들어진다. 장재민의 풍경화는 흔히 풍경화라고 생각할 때의 잘 재현된, 혹은 낭만적인 풍경이 아닌 어두운 분위기를 뿜어내는 다소 낯선 풍경화이다. 이는 한 장의 사진이 담을 수 없는 기억을 회화의 촉각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작가의 말대로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이 된다. 작가가 제시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쉽게 떠올렸던 기억들이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작가의 근래 작업들은 작가가 '자발적 고립'이라는 명명하에 찾은 다양한 지역의 풍경을 감정의 언어들 통해 그려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에 담긴 인물들은 풍경과 상호작용하며 한데 어우러진다. 지역들이 가진 각기 다른 배열과 구조, 대기의 질감들 또한 캔버스 위에 옮겨질 때 서로 작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캔버스에 담아내며 풍경을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적막함과 기억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으로 제시한다. 작품의 죽은 듯한 적막함 속에서 물성이 충돌하며 작용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역동성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기억했던 풍경을 낯설게 떠올리도록 도와준다.

장재민의 신작 7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회화적 표현을 감상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재민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각자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과거가 어떤 감정과 함께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작가 소개

장재민

장재민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은 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Project Space Sarubia)에서 기획한 'Losting Time(잃어버린 시간)'전을 시작으로 2016년 오픈스페이스 배(Openspace Bae)에서 기획한 'Floating Container(부유하는 컨테이너)'전까지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경험이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민

어떤사람

2018

oil on canvas

117 x 91 cm



장재민

바위사람

2018

oil on canvas

100 x 73 cm



장재민

타원과 망

2018

oil on canvas

91 x 117



장재민

자갈과 나무

2018

oil on canvas

200 x 160 cm



장재민

Be Green

2018

oil on canvas

38 x 45 cm



장재민

물가 나무

2018

oil on canvas

97 x 130 cm